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P. 283 B해

제1독서(사 도 4, 32-35)

제2독서(요한1서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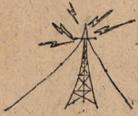
복 음(요 한20, 19-31)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총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 료



“하느님의 발가락만이라도...”

이 태 주 신부

지난번 부활 전 판공성사 때 었습니다. 오룡동 성당이 축성되고 처음 실시하는 판공성사로 첫날은 공소 판공이 었습니다. 교우 한분이 면담을 하는데 자신의 회의적인 신앙 생활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발가락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약한 믿음이 굳은 믿음이 될텐데...”하는 것이 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그 교우처럼 자신의 약한 신앙을 고민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직접 뵈을 수만 있다면...”하는 이가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서간과 복음에서 “보는 것이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직접 눈으로 뵈지 않고서라도 하느님을 믿으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검사해 보려고 했던 사도 도마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 모른이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되풀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반드시 믿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자기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리고 오늘날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은 믿음 보다는 불신을 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끝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데,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를 참 천주요 참 사람으로 보는데,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를 고통 받고 죽은 후 부활하신 이로 보는데, 믿음을 통해 보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성신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귀로, 신앙의 마음으로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형제여! 자매여!
하느님께서 당신 발가락으로가 아니라, 당신 전체를 우리와 함께 일치시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들의 믿음의 생활이, 생활속에 일부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안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갈때 믿음의 기쁨은 그때들의 삶을 흐뭇하게 할 것입니다.

〈오룡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영세민 생계 지원대책 세우라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금년도 하반기 경제안정 대책에 관한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금년처럼 물가가 아직도 상승세에 있고 경제안정기조회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때에는 국민들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얼마나 교마우신 말씀인가.

그런데 15일부터 당장 시내버스 요금이 20%나 올라버렸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시내버스 요금은 42.8%나 올랐다. 16일자 석간과 17일자 조간 신문들은 서너 지면을 온통 「무더기 인상」에 대한 기사로 새까맣게 채우고 있다. —“먹고 자고 입고 타는것 한꺼번에 올려서야” “저 임금 생계 이젠 더 못버린다” “더 안올리겠다더니, 알뜰가게 강습” “해도 너무 했다” “이렇게 속일 수가” 국민들 분통

17일에는 정부당국의 경제안정화 종합 시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지시한 영세민 생계지원대책도 발표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 49만가구(119만명)에 대해 289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연탄값 인상 차액 보조비 119억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전액 지원비 70억원, 취로사업비 추가분 100억원이 그 전부이다. 그 유명한 <울산>과 견주어 보니...

물론 우리는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국제적인 추세—기름값과 원자재값 상승—로 당하는 이 문제를 정부와 국민, 기업자가 합심해서 경제안정을 가져오겠다는 인식을 갖고 협조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단견(短見)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쏟아지는 “이렇게 속일 수가”라는 하늘의 (民心은天心) 소리에 누군가는 답해야 할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빨리 봉헌 합시다

4·19 열 아홉들에 다시 읽는다.

4·19 열아홉들을 맞는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4·19정신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가? 일부 대학생들이 “무슨 학습기간”이라고 해서 4·19전후해서 2~3일 쉬는게 그 정신인가?

〈4·19 열두들과 복간〉이라는 월간지 「다리」의 1972년 4월호 권두언이 생각나, 옮겨 본다. —“그러니 이제 4·19도 껍데기 4·19-겉은 그 민중의 열은 어디에 매장하고, 힘찬 그 민중의 함성은 어디다 쓸어버리고, 넓은 그 민중의 물결은 어디다 다 말려 버리고 이제 남은 4월은 상상한 흉작의 4월뿐이다.

대답해다오, 피울음 우는 소쩍새 된 學友의 입을 빌려 대답해 다오. 백발의 老教授 입을 통해 말해다오. 호미잡은 주름살 낀 農民의 가슴을 빌어 대답해 다오. 기름때묻은 勞動者의 입으로 말해 다오. 그리고 免稅點이하의 영세(零細) 市民들의 가슴 가슴을 통해 입술을 열어다오. —알맹이 4월은 무엇이냐, 어디에 참 넣은 가고 망령들만 어지러이 꿈을 쫓느냐, 말해다오.”

4월은 혁명(革命), 혁명은 민중의 에너지 집합체, 혁명은 그래서 역사의 음모가 아니라 역사의 정당함이다. 몇몇 사람이 모의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음모(陰謀), 그러나 4월은 어디까지나 혁명이었다.

4월은 반독재 반외세(反獨裁 反外勢), 친민중 친민족(親民衆 親民族)의 2反 2親 革命이었다. 매판(買辦) 권력을 부수고 식민정치인을 쫓았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학생과 농민, 노동자를 위한 민족적 주체 세력을 위한 역사의 흐름을 따랐다.

4월은 무수한 어용(御用) 지식인 예술인을 쫓았다. 4월은 역사가 앞뒤 없는 전차가 아니라 분명히 선후가 있으며, 또 인류사는 항상 전진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4월은 모든 국가 권력이 바로 그 민족과 민중의 노예임을 보여 주었다. 당시의 지도자는 국민이 가장 원하지 않는 정치를 하다가 종국엔 국민이 가장 원한 하야(下野)를 했다. 국가 권력의 종착역은 결국 국민의 의사였다.

다시 4월은 自由의 물결을 일게 했다. 자유당의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였다. 그들에게 3선개헌을 찬성할 자유가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단군 이래 최대의 영도자라고 추켜 세울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역자유(逆自由)가 없었다. 그 누구도 개헌 반대, 반이승만, 이런 걸 주장할 자유는 없었다. 결국 그들이 가졌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지의 의무」였다. 4월은 이런 支持의 義務를 자유의 물결로 바꿨다.

4월은 매판 제벌, 악덕 부정부패자, 착취 상인을 쫓았다. 민중이 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냉장고, TV가 생긴 집안에 호의호식하자는 게 아니다. 못 살아도 함께 못 살자는 것이다. 빈자(貧者)의 적(敵)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뜯어먹고 일어서는 거부(巨富)들이다. 이를 4월혁명은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4월은 반도(半島)의 통일에 박차를 가했다.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우리민족 자주의 힘으로

우리의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4월에 열매 맺었다.

그러나 안타까워 하라, 학생들여! 지식인 교직원여! 노동자 농민여! 이 땅의 시민들여! 4월도 이제 알맹이는 가고 껍데기만 남았다니 변두리로 쫓겨만 가는 4월 정신...

권력은 이따금 역사의 맹인(盲人)이 된다. 2차대전 말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일제의 영원성을 믿었다. 그들은 8·15때 천황의 방송을 듣고 울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당때엔 이승만의 영원불멸설을 신봉했다. 과연 그가 아니면 한국엔 인재난(人材難)으로 곧 국말(國末)이 올 줄 알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참된 집행자는 바로 「그」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호라, 알고보니 그는 보가 드문 독재자, 반민족적 지도자, 발전하는 역사와 세계 정세에 역행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을!

그러나 어차피 권력은 역사와 민족의 노예, 그 언젠가는 권력이 쥐고 있던 재책을 민중이 잡게 되는 것이려니 4월은 그냥 잠깐 이런 맛만 본 것일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이제 껍데기 4월이 반도의 산천을 덮는다. 4월의 망령(亡靈)들이 다시 민중의 가슴을 조인다. 그러나 4월은 와도 껍데기 4월, 쓰레기의 4월... 이래서 아직은 참 4월이 안온 조춘(早春)의 계절, 아아, 60년에 본 그 4월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후 줄곧 우리의 절후표(節候表)엔 3월만이 도사리고 있다. 4월은 반도의 사이비 망령때문에 상륙하다가 주춤하고 있다. 껍데기가 만건곤(滿乾坤)하여 알맹이 4월은 남해에서 기다리고만 있다.

언제 참된 4월이 오랴. 언제 이 지루한 3월이 끝나랴. 그래서 아아, 언제 권력의 재책을 민중이 잡게 되랴.

깃발힌 보리는 봄이 오면 자란다. 뜯긴 잔디는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다. 억압과 학대, 탄압과 멸시로 이 땅에서 4월을 영원히 쫓을 수는 없다. 밭힐 수록 굳어지는 게 보리와 잔디, 민중의 열이다.

밭히는 게 억울해서 이제 4월을 바라보며 다시 「다리」를 낸다. (金相賢)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 3년동안 뒷손을 보어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리관패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 4341 군산 ☎ 3032 이리 8629

한 동 입 (모의계)

성 명 서

오늘날 농민은 공업우선, 수출제일주의, 무절제한 농산물 수입, 생산비도 안되는 저
 목가 정책 등으로 농민의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사회적 소외와 천시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균형있는 국가 경제의 발전과 진정한 이땅의 민주주의 실
 현을 위해서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민 스스로의 운동은 역사
 의 요청이요 신앙인의 시대적 사명이다.

따라서 본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정의의 기초위에 농민의 자주적 운동을
 추진 육성함에 있어 농민의 의식화 내지는 인간화 교육을 첫째 과제로 삼고 있다.

즉 복음적 기초위에 농민의 의식화 회복과 그 향상은 본회 활동의 시작이요, 마지막
 이라고 할 수 있다. 배마침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도 1975년부터 자유, 평등, 인간화
 를 실천이념으로 한 교육을 각방면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본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
 게 되었으며 각지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아카데미 농민 교육은 해를 거듭할 수
 록 발전하여 농민의식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의식화 내지는 인간화 교육을 통한 자주적인 농민운동은 직접 간
 접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지난해 본회 협동사업부장 정성현 형제를 비롯한 유남선, 박명근 형제의 구속과 여
 러곳에서 본회의 집회 및 활동이 방해와 탄압을 받고 회원들이 불법연행과 회유를 당
 해온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일어난 아카데미 교육 사업에 대한 사태는 농민운동 탄압이라는 의혹을
 절제 한다. 또한 본부 교육부장을 비롯한 지방 간부 및 회원 20여명이 크리스찬 아카
 데미 교육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불법연행, 구금, 심문, 가택 수색을 받은 일련의 사태
 는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유린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와 같은 소외받고 있는 서민대중, 농민들의 인간화 교육 활동을 통한 그들의 생존
 권의 주장과 권익보장 운동의 탄압은 민주, 민생운동의 또다른 탄압의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
 를 강구해 나갈 것을 밝힌다.

1979. 4. 11

한국 가톨릭 농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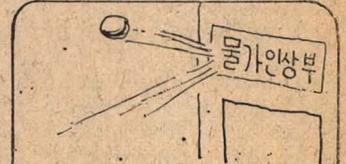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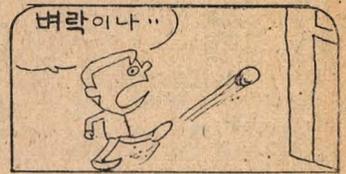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국지도신부단

축 부 활!!!

아직도 집안에 굴러다니는
 하얀 토끼는 본당으로 보내줍시다.

—사제양성 후원회

요심이 (299)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스(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계)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 · 아취 · 실내장치 · 각종간판
 페인트 · 집철 · 카메라 대여 DP&E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 1585

◎ 감초랑 약국 앞

금 · 은 · 보석 · 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활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 3252

□ 여러분의 개성과 멋을
 창조 합니다.

대 림 의 상 실

유 현 숙(발바라)

전주시 진북 1동 345-21

◆ 오리포 생크 · 가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싱크주방

김 락 균(요셉)

전화 3-6900

자택 6-0496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정문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춘계 주교회의**...23<월>~28일<토>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 가실은 물론, 이 나라를 정진적으로 인도하시는 주교님들의 회의가 성령의 풍성한 은총 속에 큰 결실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주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 **2/4분기 지구회의**...24<화>~28일<토>
안전...① 제2차 자체교육 실시 방안 수립, ② 사제 총회 의안 수립, ③ 지구 및 관할구역 조정안 연구, ④ 기타 지구 현안 문제
 3. **남자 <젠> 모임**...22일<오늘> 오후 2시, 중앙성당
 4. **이리·군산 성직자 친선 테니스 및 G. S 대회**...23일<월> 오전 11시, 군산에서
 5. **대학생 연합회 피정**...5월 4일<금>~6일<일>,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 3,000원
 6. **교리교사 연합회 대의원회**...오늘 11시~3시, 덕진성당에서, 참가비 없음
- **엠네스티(국제사면) 전주지부 인권 강연회**...23일<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① 주제...문학에서 본 인권, ② 연사...백낙청(前 서울대학교 교수)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이
사도 회장 이복석

1. 유아세례 : 27일<금> 어머니미사 후
 2. 판공성사 못보신 분은 미사전후에 보세요
 3. 성당에서 의복을 단정히 하세요
 4.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5. **부활 삼중기도** : 6월 10일<일> 삼위일체 주일까지 합니다
 6. **남자 젠 모임** : 22일<일> 오후 2시 강당
- **지난주 봉헌금** : 459,376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애령주일** : 10시미사 후 특별 위령기도
 2. **수요기도회** : 25일 밤 8시(많은 참석 요망)
 3. **미사시간 변경**
주일·평일 : 아침-5시 30분, 저녁-8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교무금 미신임자 진입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3,547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중성
사도 회장 김성록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2. **감사합니다** : 부활절 행사에 많이 나오셔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제 2차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8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토요성령 기도회** : 매주<토> 오후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
교무금은 매월 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40,241원

(순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오늘까지 사순절 토끼통을 반납해 주세요**
 2. **청년 남녀 대학생 모임** : 4월 28일<토> 7시 30분
미사후(유치원 강당)
 3. **요안나 월례회** : 4월 29일 공식미사 후
 4. **축! 결혼** : 4월 22일 12시 전동성당
신랑-최동진(베드루), 신부-홍순희(누실라)
- **지난주 봉헌금** : 203,13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범엽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수홍

1. **주일학교 소풍** : 29일<일>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안내**
학생-토요일(오후 4시),
일반-일(10시미사 후),
젊은이-수·목 저녁미사 후
 3. **사제양성 후원기금(토끼통)** 사무실에 내주세요
 4. **판공성사 보지 못하신분들** 미사전후에 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 512,166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삼

1.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6시·9시·10시·오후 3시·8시
평일-오전 6시·오후 8시,
금요일-오전 6시·10시
 2.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8시
 3. **아직 판공성사를 못보신분** 미사 전후로 보세요
 4. **사제양성 후원저금통**·불우 아동돕기 모금함 완납해 주세요
 5. **회합일시 변경** : 한마음회-금요일 저녁 7시 30분
 6. **한마음회** : 불우이웃돕기 협조에 감사합니다
송천동-소채수 형제에게 전달하였음
- 특별헌금** : 41,815원 **교무금** : 163,050원
- **지난주 봉헌금** : 62,32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협

- ※ **교무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본당 살림이 참 어렵습니다
1. **부활절 행사에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마리아·소울리아·임가타리나·문사비나·정누시아·이제마·황소피아·차마리안나(각 5천원), 송아나다시아·임아가다(각 3천원), 김발렌티나·이안젤라(각 7천원), 나안젤라·문이사벨라·안데레사·전골롬바(각 2천), 베로니카(1,500원), 정사라(1천원), 구세주의 모친 브레시디움(5천원), 두현공소(6천 3백), 돌곶지공소(5천원)
 2. **전주파티마 신용조합** : 24일 저녁 7시 결성식, 5월 1일 업무개시
 3. **유아영세** : 다음주(29일) 공식미사 후
 4. **부활 판공성사** 신자분들의 의무입니다
 5. **예비자교리**
매주<목> 오전 10시·오후 8시미사 후
매주<일> 공식미사 후·오후 8시미사 후
 6. **성령기도회** : 매주<수> 저녁미사 후
 7. **토끼저금통 봉헌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02,235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병자봉성체** : 27일
(환자 가정은 미리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2.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람**
78년도 미수와 79년도 4월까지 미수 정리 완납 바람
 3. **반회장 회의** : 오늘 저녁미사 후(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5월에 실시할 공동체 목상회에 전신자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꽃·초 봉헌** : 이다시안나(10,000원), 유마리아·송누시아(각 5,000원), 초-익명 4자루
- **지난주 봉헌금** : 278,995원